

우리 모두를 위한 멘토링 서비스, 멘토 교육

대한민국 교육은 우리에게 맡겨라

중앙대창업보육센터 한 칸의 허름한 사무실, 두어 평 남짓한 보잘 것 없는 이곳이지
 만 여기에서는 '배움에 대한 열정'이라는 표현이 더 이상 상투적으로 들리
 지 않는다. 과외교사 헤드헌팅사업을 시작으로 수익을 위한 사업보다
 는 가진 것을 더불어 나눌 수 있는 사업을 하겠다며 몽친 78년 동
 gap내기, 장원식·서석현 공동대표. 교육에 인생을 걸었다는 장원
 식 대표를 만나 파릇하게 돌아나는 벤처정신을 들어보았다.



사업을 떠나서도 서로에게 인생의 멘토가 되어준다는 장원식(左), 서석현 공동대표

Q 창업을 결심한 동기와 창업을 위해 이제껏 중점을 두고 준비하신 부분은 무엇입니까?

A 저희 역시 학창시절을 보내오며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. 학교에서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 점점 진정한 후원자를 찾기 힘들어지는 것에 착안, 이를 충족시켜줄 '멘토'를 사업 아이템으로 잡게 된 것입니다. 사업 목표를 정하고 대학에서 학습 개발 연구 소모임 등에서 필요한 정보를 익혔고, 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해 2004년 2월 본격적으로 교육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. 지금은 '학습 지도의 멘토'를 사업 모델로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'인생의 멘토'를 사업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시켜 나갈 것입니다. 그것이 이제껏, 또 앞으로 저희가 가장 공을 들이는 부분일 것입니다.

Q 2인의 공동 대표로만 사업을 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?

A 철저한 역할 분담에 따라 업무를 진행하다보니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. 현재 서석현 대표는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설계, 콘텐츠 제작 등 기술 개발을, 저는 소프트웨어와 웹 프로그램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. 수익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'사람'을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서로서로 돕는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교육을 통한 가치실현에 있어 마음이 맞다보니, 2000여 명의 교사·학생회원을 보유한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

작년 VK2004행사에서는 리딩벤처기업인 이나루T&T를 저희만의 멘토로 두게되어 든든합니다. 앞으로 사업이 얼마만큼 성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마음 그대로를 간직해 애로사항 없는 교육 프랜차이즈 업체로 키워나가겠습니다.

Q 앞으로 어떤 벤처인으로 살아가실 생각입니까?

A 사람은 혼자서 인생을 개척하는 것 같지만, 사실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가까이 있는 부모님과 형제로부터 영향을 받고, 멀게는 스승, 친구, 책, TV 등 영향을 주는 매개체는 많습니다. 저희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멘토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.

사업 준비와 사업을 시작하며 오랜 기간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교육에 대한 열정 때문이라도 절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. '꿈을 가진 도전은 반드시 결실을 맺을 수 있다'는 말을 믿고, 부단히 정진하는 벤처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.